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야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야라. 언제
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탈출 22,20-26

화답송 | 시편 18(17),2-3 7.3L ㄱ-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
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대!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
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1테살 1,5L-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태 22,34-40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
이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황금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종교, 도덕, 철학에서 발견되는 원칙 중 하나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타인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라는 금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른 황금률은 타 종교의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제1독서(탈출 22,20-26)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방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다른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어서 과부, 고아, 채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소개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2독서(1테살 1,5-10)는 테살로니카의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곳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테살로니카 1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먼저 쓰인 글로서,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지내며 이웃에게 좋은 표양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중 제30주일 복음(마태 22,34-40)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는 구약성경의 율법들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라는 것이 그분의 답변인데, 이 두 계명을 가리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은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단지 성당에 와서 바치는 미사만이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사랑 실천인지,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의 의무보다는 나의 권리를 위해 큰소리치고, 내가 이웃에게 베풀지 않은 사랑과 배려에는 무관심한 채 내가 받은 피해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은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과 이 소중한 사랑 체험에 힘입어, 우리는 일상이 되어 버린 고통의 시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황금률로 채워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사랑의 황금률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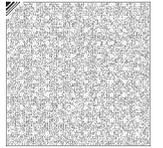
경복궁 서울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단풍이 곱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웃을 향할 때 나에게 생명의 길과 행복을 찾는 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참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임선혜 아녜스 | 성악가

| 나의 사마리아 사람

공연차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저는 운 좋게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독일 수사 신부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듬해 그분은 제게 베들레헴 순례를 제안하셨습니다. 자상한 신부님은 출발 전 낙타와 기념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겁이 많은 제가 쭈뼛쭈뼛하는 사이 성큼 다가온 낙타는 제 손을 핏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빼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타가 제 손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며 낙타의 이빨에 살이 찢기는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릴 듣고 낙타 주인이 달려왔지만, 이미 손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놀란 신부님은 서둘러 저를 차에 태우고 유대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초막절(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라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니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아무래도 방향을 돌려 팔레스타인 대학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예루살렘에서 손바닥 한가운데에 구멍이 날 뻔했네요. 아니,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하하!” 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신부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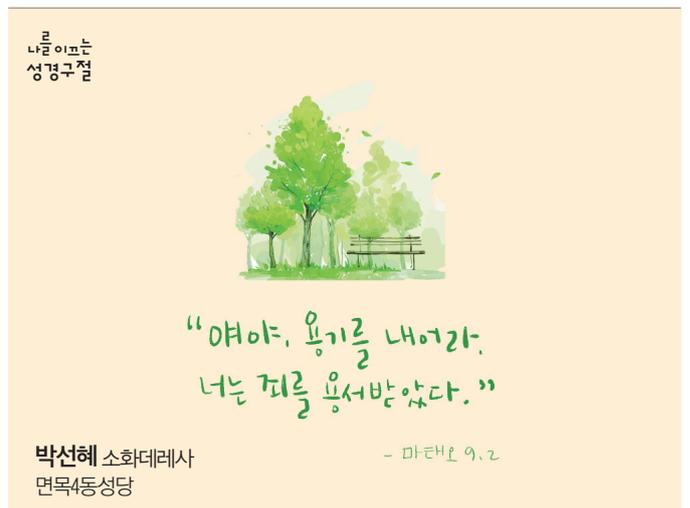
그런데 마침내 도착한 곳은 도무지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런 데서 잘못 치료받고 파상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낙타가 사람을?!” 하고 의료진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유례 없이 낙타에 물려 온 동양인에, 로마 칼라를 한 가톨릭 사제까지! 무슬림 병원에서 절대 흔한 광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실에서도 응급실에서도 모두가 너무도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몸

에 한기가 돌아 덜덜 떠는 제게 히잡을 쓴 간호사들은 이불을 가져다 겹겹으로 덮어주며 다정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안 통하면 어쩌나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그들의 영어 실력은 감탄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다행히 뼈는 무사하다며 의사는 “낙타도 한번 깨물어 주고 싶었나 보네요.” 하고 웃으며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제야 굳어있던 신부님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서며 못 미더운 얼굴을 했던 것이나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몹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된 당시 실습생과 가끔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나눕니다. 물론 온통 아랍어인 그녀의 소식을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 이제 그 글자가 두렵거나 낯설지는 않습니다.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을 비유로 설명하시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불품없이 기여왔던 순간,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자 이교도인 저를 가족처럼, 친구처럼 편히 돌보아주었던 그들,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 황무지에 던져진 천사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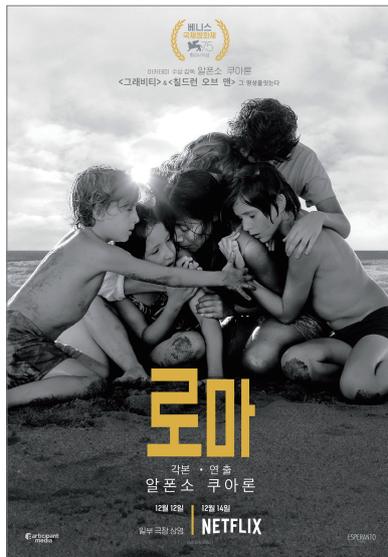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T.S.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산티. 산티. 산티”로 끝납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로마>도 “산티. 산티. 산티”로 끝을 맺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 <우파니샤드>의 결어인 ‘산티’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피폐화된 인간성과 인간 문명을 날카롭게 해부하며 부활과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황무지>는 <로마>의 이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1971년 멕시코 독재 정권의 사주를 받은 극우 테러 단체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시위대를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성체 축일 대학살’ 사건. 그 전후의 역사적 격변기가 <로마>의 시대 배경입니다. 인종과 성차별, 계급 착취, 야만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혼돈의 삶을 살면서 희망의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시 <황무지>의 어부 왕이 다스리는 저주받은 땅, 황무지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백인 가정의 원주민 가정부 클레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감독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사적인 기억의 파편들을 씨줄로, 혼란스러운 사회 풍경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공적인 기억의 파편들을 날줄로 하여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엘리엇과 함께 문학의 모더니즘 운동을 이끈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는 오로지 ‘파편적 구조’를 통해서만 극도로 혼돈스러운 현대 문명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

다. <로마>는 바로 이 파편적 구조를 통해 야만적인 사회에서의 비극적인 삶의 단면들을 세밀하게 해부합니다.

극우 테러 단체의 훈련 모습, 대학살의 거리 풍경, 사산된 아이를 인공호흡으로 살리려는 분만실 모습, 기르던 개들을 박제하여 벽면에 걸어놓은 부르조아 집 풍경 등이 영화는 섬뜩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감독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황무지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시 <황무지>에서 가뭄의 재앙을 받은 땅에 구원의 비는 내리지 않고 마른 천둥 소리만 들립니다. “다, 다, 다.” 시인이 ‘주라, 동정하라, 자제하라’로 해석한 이 천둥 소리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로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은 빨래 꾸러미를 한아름 안고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클레오와 함께 옥상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선 안타깝게도 마른 천둥 소리조차 없습니다. 대신, 비행기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 일상의 소음들만 들려옵니다. 하늘은 어떠한 구원의 메시지도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인내심 있게 오랫동안 하늘을 보여줍니다. 영화 화면이 다 끝나고 크레딧과 협찬사 로고까지 다 지나간 후 상영이 끝나기 직전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산티. 산티. 산티.” 감독이 황무지에 던져진 날개 잃은 천사들을 위해 던지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1월 1일(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Fabrice Tapsoba 신부	와가두구대교구	방배동 본당 선교담당사제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84년 11월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 1994년 10월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임태경(루카)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임태경(루카, 85세)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14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임태경 신부님은 1936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출생하여 196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잠실(현. 잠원동)·중림동(현. 중림동 약현), 군중, 명수대(현. 흑석동)·삼천포(현. 마산교구)·충무(현. 마산교구), 세검정·노량진동·가좌동(현. 가재울)·미아3동(현. 미아동)·홍제동·한강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1998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10월 17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교구청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희준 조각전: 2전시실
경기55회 동문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8일(수)~11월2일(월)

향심기도 소개강의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11월4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4주간)
곳: 명동 (옛)계성여고 상설교회소 윗층
회비: 1만원 / 문의: 010-6542-8642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열린세미나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 열린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77-2013
주제: '공동합의성-권위주의와 다수결주의를 넘어서'
발제: 현재우 박사 / 토론: 문창우 주교, 이근상 신부, 이미영 소장
때: 11월7일(토) 오후 4시~7시
유튜브 채널: cpbcTV_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자세한 내용은 www.dks.or.kr 또는 모바일앱 '서울평협'

2021~2022년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봉사자 모집

분야: 진행팀(교육 전반 운영에 협력)
때, 곳: 첫째주 또는 셋째주(토), 서울대교구청(명동)
접수: 신청서(사목국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10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해설사와 함께하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일시·코스: ① 11월3일(화) 일치의 길 일부(절두산 출발) ② 11월17일(화) 일치의 길 일부(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 출발)
회비: 7천원(1인) / 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10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2269-0413

명동대성당 도슨트 입문과정 수강생 모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명동대성당 도슨트 입문과정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접수: 온라인 접수(네이버 카페 '가톨릭미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회비: 10만원 / 문의: 02)751-4107, 4110
때: 11월9일~12월21일 매주(월) 19시30분~21시(총7주)
곳: 서울대교구청 5층 501호(선착순 60명)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미술아카데미' 참조

1강	11월9일	전례와 성당	장궁선 신부
2강	11월16일	건축학으로 본 명동대성당	김진태 신부
3강	11월23일	시와 영성의 눈으로 보는 명동성당	정호승 시인
4강	11월30일	명동대성당의 미술 이야기	이지형 큐레이터 (갤러리 1898)
5강	12월7일	해설사의 역할과 작성이론과 실제	김진화 도슨트
6강	12월14일	소통의 중심인 스피치	류시현 배우
7강	12월21일	근대문화, 역사 안에서의 명동대성당	허영업 신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

접수대상: 손글씨에 자신 있는 신자 누구나
작품규격: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직사각형(※세로로 긴 형태는 불가)
작품형태: ① 종이에 붓과 펜으로 쓴 작품은 스캔하여 스캔본 접수
② 디지털 작품은 해상도 300dpi의 JPG 파일 접수
접수기간: 11월1일(일)~11월30일(월)
접수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 접속(cc.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 - 참여하기 -
이름/핸드폰번호/성당명/세례명/주소 등 필수 정보 기입 후
파일첨부 클릭하여 작품 첨부

접수확인: 서울주보 홈페이지-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
이벤트-참여 확인-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

※공모 당선작은 2021년 서울주보 지면에 게재됩니다(당선자 개별 통보)

※접수시 입력한 개인 정보는 공모 당선자 개별 연락과 소정의 상품 발송시에만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공지사항 참조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 부부를 위한 몸 신학 피정(CPE 선교회)
때: 11월21일 10시~22일 17시 / 문의: 010-3889-1272
곳: 마리스타 교육관 / 대상: 30~40대 부부 선착순 10쌍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10월26일~12월7일 매주(월) 10시~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6-3473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10월27일(화) 12시30분(강의·성시간)~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동) 6층 / 문의: 033)432-4121

젊은이 가을 씬 피정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5만원
때, 곳: 10월30일~11월1일(2박3일), 라베르나기도의 집(경창)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꽃잎 영성' 관상 기도 피정(가르멜동정녀회)
미사: 신원식 신부 / 문의: 010-3332-8789(회비 없음)
때, 곳: 11월1일(일) 14시~17시, 가톨릭출판사 요셉홀
(전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 대상: 누구나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때: 10월31일~11월2일, 11월11일~13일, 11월16일~19일, 11월22일~25일, 12월5일~7일, 12월11일~13일, 12월31일~2021년 1월3일(연말연시·해님아·해돋이피정)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효소단식으로 몸 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지도: 노경덕 신부(본원)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11월13일~16일, 11월27일~30일, 12월4일~7일, 12월18일~21일, 2021년 1월8일~11일, 1월15일~18일
곳: 성 도미니코수도원(주최, 수용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11월18일~12월2일 매주(수)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11월17일~12월1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대치 오르간아카데미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르멜센터(가르멜 수도회)
문의: 010-4149-1853, 02)6951-1101(carmelcenter.kr)

명사초청 특강	10월30일(금) 13시30분 / 문자 접수
성시간 피정	매월 마지막(토) 10월31일 13시30분
문화강좌	숲해설·초공예·서예반 수시 모집

서강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이탈리아어·스페인어 배우기
2020년 가을 2학기 수업 모집(11월~12월 진행)
개강: 11월2일·3일(8주 과정, 30시간) / 수도자 10% 할인
곳: 서강대 외국어교육원(경의선 서강대역 앞)
문의: 02)705-8081(http://flec.sogang.ac.kr)

이탈리아어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 왕초보, 초·중·고급, 독해, 회화반
스페인어	입문, 초·중·고급, 텔레, 여행, 순례 스페인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인천교구 자혜의 샘(복향선교기독교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월	둘째·넷째주 하느님 자비 피정		
화	성경 말씀 아카데미		
수	전인적 치유 피정	목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일	찬양과 함께하는 신앙 아카데미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0월28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마재성지 '수험생과 가정을 위한 미사'
때: 수학능력 시험일(12월3일)까지 원하는 날짜, 기간만큼 봉헌 가능합니다 / 문의: 031)576-5412

인간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or.kr

제7회 가톨릭영화제(가톨릭평화방송 방영)
때: 10월29일(목)~11월8일(일)
방영 일정은 홈페이지(www.caff.kr)에서 확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유치유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유치유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옵니다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가족치료	가족, 직장 동료 등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0세 이상 참가 가능(상시)
청소년 감정코칭	생활과정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관계, 사고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훈련을 통해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게 적응, 성장하도록 돕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상시)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햇살 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운영시간: 매주(월·목) 10시~13시 / 상담전화: 02)744-0841

직원모집

반포1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517-6242
분야: 관리인(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영화 관리자, 소방 안전 및 가스 전기통신, 시설물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25일(일)까지 이메일(stephanus222@seoul.catholic.kr) 접수 및 방문·우편(우 06542, 서울시 서초구 주흥 1길 6(서초구 반포1동 742-22) 천주교 반포1동성당)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1월7일(토) 12시30분~16시	수련소(평창동)	010-9861-6691
도미니코 수도회	주말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	0505-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1일(일) 9시30분~13시	본부(둔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10-9937-0901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주님이 더욱 그리운 가을날 책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 손길



신간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 교황이 사랑한 성인들

“성덕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강대인 옮김 | 8,800원

성인들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랑한 성인들에 관한 말씀이 담긴 이 묵상집을 통해 내 안의 소명을 발견해 보세요. 성덕의 은총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간 도서

루이와 젤리

평범함의 성인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 엘렌 몽쟁 지음 | 조연희 옮김 | 14,000원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키운 부모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책에는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느님을 닮아 거룩해진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탱 부부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 시대 성가정의 모습을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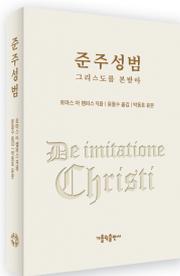
새롭게 만나는 베스트셀러

마리아의 비밀(개정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함께한 성모님의 고백!

|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최효선 외 옮김 | 18,000원

성모님이 당신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회고록이 발견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마리아의 비밀》은 이런 특별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소설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삶, 예수라는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 보세요.



새롭게 만나는 스테디셀러

준주성범(소)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가장 잘 담아낸 스테디셀러

| 토마스 아 캠퍼스 지음 | 윤율수 옮김 | 15,000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영성 지침서, 《준주성범》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며 읽기 좋은 사이즈와 튼튼한 양장 표지로 고전을 더 오래,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가톨릭의 모든 것! 지금 YouTube에서 **‘가톨릭북’**을 검색해 보세요. ***



YouTube 가톨릭북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북’ 검색 또는 QR코드에서 연결됩니다

◆◆ 기부 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10월 12일 ~ 10월 18일 : 300,000원)
누계 : 1,843,399,203원

권 분 생 : 200,000원 | 김 영 애 : 100,000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전년대비 교무금·주일헌금 비교표]

(단위: 원)

총 계	2019년	2020년(❖)
교 무 금	1,330,142,060	1,233,928,800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 ☞ 93% 수준		
주 일 헌 금	2,124,076,399	736,272,045
2019년 대비 2020년 주일헌금 ☞ 35% 수준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주일헌금		57% 수준

(❖ 2020년 교무금·주일헌금 총계는 예상수치입니다!)

본당 재정 결산 보고 및
 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요청

2020년 10월 1일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9월 본당 수입은 2019년 1~9월 대비 약 20억 원 가량 부족하고 이 중 교무금과 함께 본당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일헌금은 전년대비 3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상기 [비교표] 참조).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경비 지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본당 운영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 분들에게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제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울) 신부

《 견진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성령의 특은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실 분들과 축하와 함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주례 : 손희송 베네딕도 총대리주교님

※**안전**을 위해 오후 2시 미사는 견진 당사자와 대부모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다른 시간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위령의 날 미사 》

11월은 「위령 성월」로서 주님의 자비에 맡겨진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11월 2일(월)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당일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11월 1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합동 위령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 성소후원회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 대성전

◎ 11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신자환영식은 11월 1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금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주일반	오전10:00	402호	이 요셉피나 수녀

※각 반 50명씩 환영식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환영식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도·농 한마당 잔치 취소

11월 1일(주일) 성당마당과 성모동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주최의 ‘도·농 한마당 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자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미사 후 ~ 오후 4시까지
- 신자분들의 고해성사를 위하여 11월 1일(주일)부터 문화관에서 임시 고해소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0/12-10/18).....30,480,000
 - 연중 제 29 주일 헌금.....13,207,710
 - 전교 주일 2차 헌금.....6,113,000
 - 감사헌금 (10/12-10/18).....1,500,000
- 강 베로니카 / 김 노엘라 / 문 엘리사벳
오 엘리사벳 /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정 소화데레사 / 최 비앙카 / 최 이냐시오
홍 가타리나 / 홍 마리아 / 익명(1)